문재인 대통령 北숙제 떠안고 독일행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5일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독일 공식 방문과 G20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로 출국하기 위해 전용기로 이동하고 있다.

美순방 일주일만에 독일 방문…공항 분위기 정반대

베를린 연설 내용 수정 전망…靑 비상체제근무 돌입

5일 오전 8시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 장마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듯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잠시 후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독일 정상회담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공항에 들어섰지만 표정을 밝지 않았다. 전날 감행된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발사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한미 정상회담차 미국으로 떠날 때의 환한 표정과는 정반대로 시종일관 어둡고 굳은 표정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 동해안에서 한미 연합 탄도 미사일 사격 훈련이 벌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약 1시간 뒤 공항에 도착했다. 전날 북한은 2단계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로 주장하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고 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한 뒤 당일 오후 9시 한미 미사일 연합 무력시위를 직접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 뜻에 동의했다.

이런 탓에 이날 검붉은색 넥타이를 맨 문 대통령은 공항 입장부터 전용기 탑승 때까지 내내 무거운 분위기를 이어갔다. 미국으로 출국할 때 화사한 푸른색 무늬 재킷으로 시선을 모았던 김정숙 여사도 이날은 무채색 바지 정장 차림이었다.

문 대통령은 공항 현장에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등과 인사했다. 문 대통령은 일일이 악수하면서 "잘 다녀오겠다"고 말했고,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에게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쁜 분이 나오셨다"고 인사했다. 하지만 일주일 전 문 대통령이 미국으로 떠날 때 참모진과 활기차게 인사하고 공항 관계자들과 서슴없이 대화하던 모습과는 달리 현장 분위기는 북한 미사일 사건 여파로 가라앉아 있었다.

문 대통령은 귀빈실로 이동한 후 청와대 참모진 및 여권 지도부와 약 7분간 비공개로 이야기를 나눈 자리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 통과를 위한 국회 협조가 지지부진한 점을 걱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건을 두고 "무겁다"는 심경을 짧고도 압축적으로 털어놓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출국하기 전 현장에 배웅 나온 분들과 일일이 인사하는 시간이었다"며 "긴 말씀은 안하셨던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용기가 뜨기 직전까지 한미 연합 탄도 미사일 사격 훈련을 점검하고 발표문을 점검하느라 부산스러웠다. 특히 미국 정부와의 논의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다"는 부분을 어감을 고려해 "동의했다" 표현으로 고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탑승한 전용기는 오전 8시15분경 서울공항을 떠났다. 한독 정상회담과 G20 현장에서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가 더욱 비중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오는 6일 우리 시각으로 저녁에 열리는 문 대통령의 독일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 내용도 막판 수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연설은 일명 '신(新) 베를린 선언'으로서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 내용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한편 문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청와대는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간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날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유관 부처와 실시간 소통하면서 북한 동향과 한반도 정세를 살핀다.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당 지도부-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한 홍준표(왼쪽) 대표가 정우택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홍준표-친박, 첫날부터 '으르렁'

지명직 최고위원에 洪 최측근 임명 뜻 밝히며 충돌

홍준표 자유한국당 당대표와 친박계가 4일 새 지도부 첫날부터 신경전을 벌이며 향후 당내 치열한 주도권 다툼을 예고했다.

홍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첫 최고위에서 정우택 원내대표가 공개 발언을 길게 하자 다음 발언 순서인 이현재 정책위의장을 향해 "1분만 (발언해 달라)"며 기선 제압을 시도했다.

그는 비공개 전환 직전에도 "오늘 사무총장과 수석대변인은 (이번 회의가) 마지막인데 한마디 하라"며 사실상 당내 인사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의중을 숨기지 않았다.

비공개 전환 후에는 지명직 최고위원에 홍 대표가 자신의 최측근인 이종혁 전 의원을 임명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친박계 최고위원들과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박 김태흠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뉴시스와 통화에서 "홍 대표가 갑자기 이 최고위원을 임명한다고 남들 모르는 상태에서 말해서 내가 '신중히 생각하라'고 했다"며 "이재만 최고위원도 거들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 전 의원은 대표의 핵심 중의 핵심이기 때문에 최고위원으로 임명하면 사당화 등의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며 "또 원외 최고위원이 많기 때문에 원내 인사로 하는 게 정치적 무게가 있으므로 원내로 가는 게 낫다, 신중히 고려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홍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뒤로 이 최고위원도 내 말을 뒷받침하는 얘기를 했다"며 "그런데도 홍 대표가 이 최고위원 임명 강행을 했다"고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재만 최고위원도 "지명직 최고위원은 대표의 영역이지만 우리 지도부 면면을 보면 홍 대표와 같은 성향의, 가까운 분들로 많이 구성됐다"며 "그렇다면 굳이 또 자기 수족을 데리고 와서 가까운 사람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게 여론에 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고 우리 당을 생각하면 우려가 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와의 신경전도 계속됐다.

홍 대표는 이날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을 만나 "당론과 당의 방침과 배치되는 원내활동을 바람직스럽지 않다"며 "의원들의 소신은 존중하지만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배치되는 일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고 원내지도부와 각을 세웠다.

반면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긴급 의원총회 직후 정부조직법 및 추경 심의 보이콧 결정과 관련, 홍 대표와 협의가 있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원내 일은 제가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태경 "망한 길만 찾아 다니는 洪, 애처로워"

여야 상견례 관례 깨고 與만 방문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5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망한 길을 찾아다니는 홍 대표가 애처롭다"고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어제 홍 대표가 취임 첫 날부터 국민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다. 신임 당대표가 여야를 돌며 상견례하는 관례를 깨고 더불어민주당만 방문했다"며 "한국당은 '양당' 전략이라고 했지만 옹졸한 잔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만나봐야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으니 피하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이 만나면 민한당이 된다. 민한당은 엉뚱한 정치하다가 망한 당"이라고 지적했다.

정우택 "文대통령, 나홀로 北 짝사랑 걱정돼" 비판

"G20 회의서 통일구상, 전세계 웃음거리 되선 안돼"

"北 ICBM 발사한 것 설명 못하면 국민에 사과해야"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에서 베를린 통일구상을 내놓을 것이라고 하는데 북한은 쳐다보지 않는 나홀로 짝사랑 타령, 천진난만한 기대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세계 20개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 문제를 논의할 G20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 대통령만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구상에 젖어 세계의 웃음거리가 돼서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어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발사 후 한 일은 그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실망스럽다는 구두 선언을 날린 것 뿐이다"라며 "구체적이고 믿을 수 있는 대책 나오지 않고 똑같은 규탄과 경고뿐이었다"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북한이 ICBM 발사 성공을 발표한 시간에 청와대 참모진을 도열하고 김상곤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주고 함께 박수치는 행사 벌였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상식을 벗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께서는 부디 '남북대화 주도권 우리가 쥐었다'거나 '우리가 운전석 앉았다'는 자기만족에서 벗어나야한다"며 "세계가 우리만 남겨두고 다른 차로 갈아탈지 모른다는 냉엄한 현실 직시할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그동안 보수정권이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아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고 계속 강조해왔다"며 "저는 이 말을 하며 문 대통령은 보수정권의 정책 실패라고 이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북과 대화를 하겠다거나 또 퍼주겠다고 해도 이렇게 미사일을 쏜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냐"며 "만약 설명을 못하며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덧붙였다.

지역공감.미래창조.정론직필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